

# 북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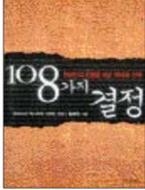
Books

## 한국사 성공과 실패 가른 역사적 선택

### 108가지 결정

함규진 지음

만약 나당 동맹이 없었고, 고구려의 장수왕이 평양 천도를 하지 않았다면 삼국 통일 은 고구려의 몫이었을까? 또 우리가 일본보다 먼저 개방의 문을 열었다면 일제강점기와 분단을 겪지 않았을까? 하지만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가정이 없다. 역사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인 선택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쓰는 간신열전’, ‘역사법정’ 등을 통해 역사를 새롭게 해석한 함규진 씨가 재미있는 설문조사를 했다. 이이화, 박노자, 이덕일, 신용하, 송기호, 민경현 등 105명의 역사학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역사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을 찾아낸 것이다. 함씨는 가장 많은 응답이 나온 중대한 역사적 결정 108개를 골라 ‘108가지 결정’에 담았다. 역사는 결정적인 선택의 연속이라는 게 이들 역사학자들의 일관된 의견이었다. 설문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훈민정음 창제’라는 응답이 많았다. 또 연대기 순번을 겪지 않았을까? 하지만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가정이 없다. 역사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인 선택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호령했지만, 현재는 한반도가 분단되고 중국의 역사 왜곡에 맞서야 하는 이유도 과거의 결정적인 선택에서 찾을 수 있다. 고구려 장수왕은 427년 수도를 국내성(지금의 중국 지린성 지안현)에서 평양으로 옮겼다. 평양이 국내성보다 땅이 비옥하고 풍요로웠고, 걸려온 관계였던 만주 지역의 호족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많은 역사학자는 평양천도는 고구려가 대륙을 포기하고 반도에 눈을 돌린 계기였다고 말한다. 광개토태왕이 넓혀던 북방 영토에서 영향력이 줄어들게 됐다는 것이다. 역사학자들은 우리 영토가 한반도로 좁아진 것은 이성계의 선택적 결정적이었다고 주장한다. 명나라가 요동 땅까지 관리하려고 나서자 고려는 이성계에게 정벌을 명한다. 10만 대군을 이끌고 전쟁에 나선 이성계는 1388년 5월 20일 압록강 하류 위화도에서 회군을 결정한다. 명과의 전쟁에 승산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일종의 쿠데타였다. 역사학자들은 위화도회군을 “우리가 대륙을 잃어 버린 한국사의 가장 큰 실수”였다고 말한다. 물론 조선 건국이 고려의 폐해를 해소하고 법치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영토가 한반도로 국한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맥아더의 결정은 한반도 분단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맥아더는 중국을 자극하지 말라는 훈령을 어기고 두만강 국경선 접근을 한국군에게 맡기지 않았다. 전쟁을 조기에 끝낼 수 있었는데

#### 한국사 20대 중요 결정

- 1위 한글창제(1443)
- 2위 위화도 회군(1388)
- 3위 나라통일(648)
- 4위 5·16 군사 혁명(1961)
- 5위 동학농민운동(1894)
- 6위 과거제도 도입(968)
- 7위 한국전쟁(1950)
- 8위 평양 천도(427)
- 9위 박정희 임살(1979)
- 10위 동의보감 편찬(1596)
- 11위 남북정상회담(2000)
- 12위 경부고속도로 건설(1968)
- 13위 무신(1176)
- 14위 고구려 불교 승인(372)
- 15위 단독정부 수립(1948)
- 16위 김구 암살(1949)
- 17위 해국정책(1866)
- 18위 후보 단일화 실패(1987)
- 19위 부계성 강제 폐지(2005)
- 20위 지미 카터 방북

▲격동의 동아시아를 걷다=살림출판사의 ‘그들이 본 우리’ 총서 시리즈 네 번째. 독일 외교관의 눈에 비친 19세기 동아시아 분석서로 일본이 기독교를 수용하는 과정, 청나라의 화폐제도 개혁 등 당시 동아시아의 핫이슈를 폭넓게 다뤘다. <살림·2만3천원>

▲패랭이꽃-짓밟힌 조선 여인의 낮=아동문학, 소설, 희곡 등 다양한 창작활동을 해 온 우봉규가 일본군에게 강제로 끌려간 종군 위안부들의 이야기를 소설로 엮었다. 위안부로 끌려간 22세 강옥아의 고달픈 삶을 통해 위안부의 상처를 그렸다. <동쪽나라·9천500원>

▲뉴질랜드 캠퍼엔 여행=인기 만화가 허영만, 신약인 박영석, 여행칼럼니스트 김태훈이 함께 2006년 캠퍼엔을 타고 떠났던 뉴질랜드 여행. 다양한 에피소드와 함께 뉴질랜드의 숨은 명소와 현지인만이 알 수 있는 여행 정보들이 소개됐다. <랜덤하우스·1만2천원>

▲나도 이별이 서툰다-죽음에 대한 어느 외과 의사의 아름다운 고백=캘리포니아의 외과교수 출신인 폴린 켈이 외과 교육과 임상수련을 거치면서 접했던 죽음에 대한 경험을 기록했다. 어떻게 죽음이 단련되는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 등을 소개했다. <공존·1만3천원>

▲HOW TO MAKE WAR-무엇이 현대전을 움직이는가=전쟁에 관한 백과사전. 군사전문가인 제임스 더니건이 첨단 전자전 장비, 인공위성, 화학·생물학 작용제, 핵무기 등 선진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기체계들의 종류와 성능, 전술적인 운용개념 등을 설명했다. <플래닛미디어·3만8천원>

▲세계황당상식사전=스웨덴에서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를 24시간 켜두어야 하는 까닭, 미국에서 우주여행 희망자를 모집할 때 가슴 확대수술을 한 사람을 제한하는 이유 등 잡다한 상식을 소개한 책. 각 나라를 여행할 때 도움이 되는 정보도 함께 실려있다. <뜨인돌·1만2천800원>

▲제작회사는 어떻게 거대한 공명이 되었는가=영국의 제작 전문 저널리스트인 제키 로가 노바티스, 화이자 등 거대 제약회사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이들이 소비자의 주머니를 파고든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했다. <공리·1만2천원>

▲어스시의 이야기들=‘반지의 제왕’ ‘나니아 연대기’와 더불어 세계 3대 판타지 중 하나로 사랑받는 연작 소설, ‘빠앗 자들’ ‘어둠의 윈손’의 작가 어슬러 르킨의 신작 소설집으로 ‘어스시 마법사’ 연작 가운데 종·단편 다섯 편을 묶었다. <황금기·1만5천500원>

▲시인의 죽음=유문화사가 새롭게 시작하는 세계문학전집 6권. 신중국 휴머니즘 문학의 기수이자 우리에게 ‘사람아아, 사람아’의 작가로 널리 알려진 다이허우잉의 처녀작으로 1960년대 중국 문화 대혁명의 겪었던 작가의 경험담이 실렸다. <유문화사·1만5천원>

### ‘한국 근대사 산책’ 완간

강준만 교수 5~10권 펴내



사회문화 비평가인 강준만 전 북대 교수가 1700년대 천주교 박해부터 해방까지 근대사를 정리한 ‘한국 근대사 산책’ 시리즈를 완간했다. 지난해 천주교 박해부터 경술국치까지 5편으로 개화기를 정리한 데 이어 이번에 ▲6권 사신부에서 민족계조론까지 ▲7권 간토 대학살에서 광주학생운동까지 ▲8권 만주사변에서 신사참배까지 ▲9권 연에 열풍에서 입시지옥까지 ▲10권 항쟁계명에서 8·15 해방까지 등 5권을 출간, 한국 근대사를 완성했다. 책은 역사를 소개한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라 여러 학자의 다양한 주장을 바탕으로 한국 근대사를 생동감 넘치게 묘사해 한 편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는 듯하다. <인물과사상사·1만4천원> /이은미기자 emlee@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는 남북교류로 경제적 원인을 달성했다는 시각과 일방적인 퍼주기였다고 엇갈렸다. 지난 2000년 6월 13일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

### 한국의 글쟁이들

구본준 지음

‘저자 이름’만으로도 신뢰를 주는 필자들이 대해 독자들이 갖는 궁금증은 무궁무진하다. 특히 상상력을 기반으로 글을 쓰는 문학가들과 달리 수많은 자료를 분석하고 재구성해 책을 쓰는 미술, 역사, 과학, 국문학 분야의 저술가들에게는 깊은 내공도 느껴진다. 그 궁금증은 더해진다. 한겨레 신문에서 오랫동안 책 담당 기자를 해온 구본준씨가 펴낸 ‘한국의 글쟁이들’은 하나의 ‘브랜드 네임’이 된 국내 최고의 저술가 18명에 대한 보고서다. 필자가 동아출판 저술가 김용옥의 집을 찾았을 때 눈에 띈 것은 재즈를 배우기 위해 들여놓은 ‘피아노’와 체력 단련용 ‘평행봉’이었다. 첼반통으로 여겨지

### 국내 최고 저술가 18명에 대한 보고서

던 고려대 교수직을 그만두고 집안 글쟁이가 된 그가 펴낸 책은 43종 54권, 총 판매부수는 250만권에 이른다. 자신의 출판사(통나무)를 차려 저술-출판 시스템을 갖춘 김용옥은 글 쓰는 게 힘들지 않냐는 필자의 질문에 “나는 항상 글이 잘 써진다. 문장을 시작하면 글로 써달라고 아이디어들이 머릿속에서 아우성처럼 친다. 내가 생각해도 너무 쏟아져 귀찮을 지경이다”고 말한다. 하지만 자신이 모르는 것을 배울 때는 사정 없이 견문해가는 게 그의 특성이기도 하다. ‘미처야 미친다’ 등을 펴낸 국문학 저술가 정민(한양대) 교수는 대표작 인물 고양 집안이 꼽힌다. 가장 고리타분한 분야인 ‘고문학’을 가장 모던한 감각으로 변화시켜 독자들이 만나는 정교수는 끊임 없이 책을 펴낼 수 있는 이유를 “책 쓰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게 없으니까”라고 답한다.

저자는 긴급구조 전문가 한비아는 유명저술가를 넘어서 하나의 사회적 롤모델이 된 글쟁이로 평가한다. ‘지도밖으로 행군하라’ 등 4종 7권의 책이 200만부 팔려나간 한비아의 경우 그의 책을 읽고 ‘한비아처럼’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단연 돋보인다. 책은 그밖에 허영만 화백과 짝을 이뤄 ‘타짜’, ‘미스터 Q’ 등을 펴낸 만화가 김세영, 7년 동안 60권의 책을 내며 괴력을 발휘중인 자기계발 저술가 공병호, ‘조선왕 목살사전’ 등을 통해 역사분야에서 위치를 굳히고 있는 이덕일 등을 소개하고 있다. 또 전통문화 저술가 허근, 서양사 저술가 주경철, 교양미술풍 저술가 노성두·이주현, 과학칼럼니스트 이인식·정재승의 치열한 글쓰기 모습도 만날 수 있다. <한겨레 출판·1만1천원> /김미기자 mekim@kwangju.co.kr

### 법원경매 전문회사

- 불 알서가는 사람들 - (주)옥션코리아

위치: 광주지방법원 경매입찰장 앞 상담전화: (062) 222-8446

경매채권/투자수익확출/성공적 파트너 권리분석, 현금유출내역서 및, 낙찰여부, 낙찰가예상분석, 애고등기, 선순위 가등기, 기채부, 기차입차인 등 차등화된 상담을 기다립니다. (주)옥션코리아 대표 1:1 무료상담

▶ 근린시업					
소재지	대면	감정가	최저가		
원진/주유소	372/96	16952000	11955000		
원진/주유소	134/768	29951000	19970000		
원진/주유소	50/234	5957000	19990000		
원진/주유소	30/40	2920000	19930000		
원진/주유소	400/61	4923000	29960000		
원진/주유소	975/1188	35970000	16910000		
원진/주유소	169/768	14914800	79920000		
원진/주유소	549/176	79981000	39130000		
원진/주유소	136/357	10938000	79920000		
원진/주유소	288/120	89720000	49900000		
▶ 근린주택					
소재지	대면	감정가	최저가		
원진/주유소	61/133	3990000	19730000		
원진/주유소	60/196	14970000	89270000		
원진/주유소	57/99	2918000	19210000		
원진/주유소	125/257	9970000	59430000		
원진/주유소	158/96	3996000	19900000		
원진/주유소	783/157	79913000	29720000		
▶ 토지					
소재지	지목	면적	감정가	최저가	
원진/주유소	담	608	2818000	19720000	
원진/주유소	담	450	4020000	28200000	
원진/주유소	담	641	2756000	19300000	
원진/주유소	전	448	2813000	19690000	
원진/주유소	과수원	3236	29960000	197900000	
원진/주유소	과수원	1562	29970000	197800000	
▶ 아파트					
소재지	명칭	면적/층	감정가	최저가	
원진/주유소	영성/영성	33/7	19290000	9030000	
원진/주유소	진원/진원	24/7	8000000	5600000	
원진/주유소	동신/동신	27/1	5000000	3500000	
원진/주유소	쌍문/쌍문	34/11	19350000	9450000	
원진/주유소	백운/백운	26/4	6800000	4760000	
원진/주유소	운안/운안	33/3	8800000	6020000	
원진/주유소	화정/화정	주공	13/4	5000000	3500000
원진/주유소	운안/운안	나산	51/13	19290000	19230000
원진/주유소	오서/오서	주공	15/5	3400000	2380000

### 대인동삼일부동산

☎ (02)228-1140, 020-911-602-2532 (동주영, 신본정, 대인동, 신본정, 대인동)

#### 모델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료를 내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평주시내권 및 시외순님으로 모델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상 영수실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료를 내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알아드리겠습니다.

### 수원지구 건물임대

호남척도의 신도시 1일 유동인구 30만명 모이아파트-우미아파트 앞 3면 도로점

1층 330㎡ 분할가능 편의점/아동통신/약국/안경점/호프전문점/점포점포 앞 보도블록 300㎡있음

2층 340㎡ 170㎡ 소이과/치과/내과/전문클리닉센터

3층 340㎡ 분할가능 영어/수학/논술/과학학원

4층 340㎡ 피부관리/요가원

5층 340㎡ 커피숍/스포츠센터

6층 200㎡ 레스토랑/호프전문점 옥상 90㎡ 사용 2008년 12월 입주예정

명성공인중개사 임대료의 016-811-3424, 011-825-0510

### 한국부동산 공인중개사

☎ 062-374-2860 · 010-9115-4467 위치: 화정동 세무소이리

수익성 최고 원룸, 전, 단 | 수익성 최고 상가, 주택 상가건물

· 서구 중앙동/대지 210㎡ / 4F/원룸/보증금 8800만 원/월4400만원

· 서구 금호동/대지 230㎡ / 3F/안집/보증금 3천/월 200만원

· 광안구 연산동/전/1354㎡ /매가4900만원

· 광안구 연산동/전/3303㎡ /2억5천

· 광안구 고봉동/전/925㎡ /7천만원

· 광안구 우산동/전/3000㎡ /5억5천

· 서구 세하동/도로점전/2642㎡/5억5천만원

· 서구 쌍촌동/대지/600㎡ /4억

· 서구 화정동/대지 350㎡/건 평1320㎡/17억/보증금 4억 /월900만원

· 서구 벽진동/대지 221㎡/단 층건평66㎡/매가1억

· 서구 쌍촌동/대지 160㎡/구 한옥1동/매가7천

· 서구 쌍촌동/대지 350㎡/2F /건평165㎡/매가 2억6천5백 /2억5천

· 서구 쌍촌동/대지 859㎡/매가 4억6천800만원

· 서구 매월동/대지 1123㎡/건평 198㎡/6억5천

· 서구 세하동/대지 337㎡/구 한옥1동/매가1억2천

· 서구 세하동/대지 480㎡/구 건물1동/매가1억7천만원

수익성 좋은 원룸, 상가건물 수시접수합니다.

\* 불안한 물가상승, 투자할 곳은 부동산뿐입니다 \* 투자자의 입장에서 최우선으로 최고수익을 얻을수 있는 부동산을 소개합니다. 지만전 전제 계약한 점 양해 바랍니다.

### 수원 부동산 컨설팅

☎ H·P : 010-5714-1114 (하남공단 3번로 / 수원지구 앞)

▶ 산월동 자연녹지 - 전지공고-보통별원 사이 약 6,000㎡ - 주유소, 화물차고지, 목류창고/분할가능

▶ 일곡지구 고급주택가 부지 - 롯데A, 일산초교 서쪽 약 380㎡ - 고급주택 밀집지역 / 별도 토공사 불요

▶ 단독주택 매매 - 단원동 중앙고교~문화예술회관사이. 대지 9200㎡ 2층주택 / 1층 주인집 2층별도 출입 / 2구구 임대중 정원수, 연못 관리상태최상 / 최신인테리어 개보수 완료

▶ 답양 관리지역 일야 - 창평 23,000㎡ / 폭9m진입로확보 - 첨단, 일곡에서 10분 거리 - 공장, 제철장, 목류창고, 복지시설가능

▶ 원룸매도 (수익률 약15%) - 도산역세권 / 원룸17실,쓰리룸1실 - 매대기4억3천만원 / 실부지2억3천만원 - 보증금2억, 월세280만원

▶ 수원지구 - 초대형학원 최고인자 확보 - 아파트 분양권 로얄급 다수 확보 (현진, 코오롱, 우미, LG자이...)

▶ 공장 매매 / 임대 - 하남, 소촌, 평등공단 매매 임대물건 수시 접수 & 처리중

▶ 기타 - 수익성 좋은 10억 전후 건물구할/매수대거중